

프로야구 FA 대이동... 'LG 보상선수' KIA의 선택은?



KIA에서 LG로 이적한 장현식.

장현식 계약 어제 승인...KIA, 보상선수 19일까지 선택 최근 3년 평균 연봉·평균 옵션 금액 바탕 A·B·C등급 나눠 KT 우규민·SSG 최정·한화 심우준 등 지금까지 8명 계약

FA(자유계약) 이동이 시작됐다. KT가 13일 FA 계약을 통해 한화로 이적한 심우준의 보상 선수로 오른 손 투수 한승주를 선택하면서 마운드 전력을 강화했다. 2025 FA 이적 1호인 심우준의 보상 선수를 시작으로 또 다른 이동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11일 LG행을 선택한 투수 장현식까지 현재 FA 계약을 이룬 선수는 모두 8명이다. 가장 먼저 사이드암 우규민이 소속팀 KT와 2년 총액 7억원(계약금 2억원, 연봉 2억원, 옵션 1억원)에 도장을 찍었다. 이어 계약 소식을 전한 선수는 SSG 내야수 최정이었다. 4년 총 11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80억원)의 대형 계약에 성공한 최정 역시 소속팀과의 계약이자 두 선수는 보상선수가 필요 없는 C등급이다.

FA등급은 최근 3년간 평균 연봉·평균 옵션 금액을 바탕으로 A등급(구단 연봉 3위 이내·전체 연봉 30위 이내), B등급(구단 연봉 4-10위·전체 연봉 31-60위), C등급(구단 연봉 11위 이하·전체 연봉 61위 이하)으로 나뉜다.

FA를 영입한 팀은 영입 선수 등급에 따라 원소속팀에 다른 보상을 해야 한다. A등급의 경우 해당 선수의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20명 보호선수 외 1명, 또는 연봉의 300%를 원소속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B등급을 영입하면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25명 보호선수 외 1명을 내주거나, 전년도 연봉의 200%를 지급하게 된다. C등급 선수는 직전 연도 연봉의 150%만 보상하면 영입할 수 있다.

지난 7일 내야수 심우준(B 등급)이 이번 스토브리그 FA 이적 1호 선수가 됐다.

올 시즌까지 KT에서 뛰었던 심우준은 4년 최대 50억원(보장 42억원·옵션 8억원)에 한화로 이적했다. 그리고 KBO는 9일 심우준의 FA 계약을 승인했고, 13일에 보상선수가 발표했다.

FA를 영입한 팀은 계약 승인 공시 후 3일 이내 보상 선수 명단을 전 소속 구단에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원소속팀은 명단을 받은 뒤 3일 이내 보상 선수를 지명하게 된다.

이 절차에 따라 KT는 13일 한승주를 선택했다. KT는 또 한화로부터 심우준의 연봉 200%인 2억 6000만원도 받는다.

KT는 다시 또 한화의 보상선수 명단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 8일 선발 자원인 엄상백(B등급)이 4년 최대 78억원(계약금 34억원·연봉 총액 32억5000만원·옵션 11억5000만원)에 한화로 떠났고, KBO는 10일 이 계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KT도 보상선수 유출이 있다. KT는 엄상백 계약 이후 허경민(B등급)의 영입을 발표했다. KT는 9일 허경민과 4년 최대 40억원(계약금

16억원·연봉 총액 18억원·옵션 6억)에 FA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도 10일 KBO의 승인을 받았다.

이후 FA 계약 소식을 전해는 곳은 롯데였다. 롯데는 10일 A등급의 김원중과 구승민 '집토끼'를 잡는 데 성공했다. 김원중과는 4년 최대 54억원(보장 금액 44억원·인센티브 10억원), 구승민과는 2+2년 최대 21억원(계약금 3억원·연봉 총액 12억원·인센티브 6억원)에 계약을 끝냈다.

내부 FA이기 때문에 선수 이동은 없다.

다음 FA 계약자는 우완 장현식이었다. KIA의 필승조로 통합 우승에 기여했던 그는 지난 11일 LG와 4년 최대 52억원(계약금 16억원·연봉 36억원)에 계약을 하고 서울로 떠났다.

장현식은 B등급인 만큼 KIA는 LG로부터 25명 보호선수 외 1명과 올 시즌 연봉 1억6000만원의 200%인 3억2000만원을 받게 된다.

KIA가 선택할 보상선수에 시선이 쏠린다. KBO는 13일 장현식의 계약을 승인, 공시했다. 이에 따라 LG는 16일까지 25명의 보호선수 외 보상 선수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KIA는 19일까지 보상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LG가 바로 명단을 제출하고 KIA가 즉시 보상 선수를 선택할 경우 빠르면 14일, 늦어도 19일에는 KIA의 새 얼굴이 결정된다.

KIA는 지난 2022년 11월에도 LG의 보상선수 명단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포수 박동원을 보내고 '경험'에 주목해 좌완 김대유를 선택했었다. KIA는 좌완 강팀으로 거듭난 만큼 당시와는 다른 시선으로 명단을 확인하고 선택을 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중일호' 예선부터 '험난'

'프리미어12' 쿠바 투수 日 프로야구 자책점 1위 모이넬로 등판 확정

한국 야구대표팀이 '피하고 싶은 투수'로 꼽은 쿠바 에이스 리반 모이넬로(28·소프트뱅크 호크스·사진)와 프리미어12 B조 예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쿠바 국영 뉴스통신 프렌사 라티나는 13일 "아르만도 존슨 쿠바 대표팀 감독이 모이넬로를 2024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한국전 선발 투수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감독은 지난 1일과 2일 한국의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대표팀과 평가전을 벌일 때는 "프리미어12에서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 에이스 모이넬로를 13일 도미니카공화국과의 첫 경기에 선발로 내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1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존슨 감독은 도미니카공화국전 선발 투수로 요에니스 예라를 예고했다.

예라는 1일 한국과 평가전에 선발 등판해 3이닝 3피안타 2실점 했다.



한국은 14일 오후 7시 대만 타이베이 텐무야구장에서 벌이는 프리미어12 B조 2차전 쿠바와의 경기에서 예라와의 대결을 기대했지만, B조 전체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선발 투수로 꼽히는 모이넬로를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2017년부터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에서 뛰는 모이넬로는 올해 정규시즌에서 11승 5패, 평균 자책점 1.88을 올렸다. 일본 퍼시픽리그 평균자책점(ERA) 1위가 모이넬로다. 원소 투수인 모이넬로는 시속 155km를 넘나드는 빠른 공을 갖췄다.

변화구도 여러 종류를 장착했다.

일본 프로야구 통계사이트 베이스볼데이터는 모이넬로의 구종 분포를 직구 46%, 슬라이더 20%, 체인지업 19%, 커브 15%로 분석했다.

WBSC가 배포한 미디어가이드에 따르면 한국 야구는 2011년 이후 쿠바와의 국제대회 대결에서 6승 5패로 앞섰다. 지난 1일과 2일 벌인 평가전에서도 한국이 2-0, 13-3으로 쿠바를 눌렀다. 하지만, 모이넬로를 앞세운 쿠바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대다.

/연합뉴스

김연경, 클래스 여전하네

프로배구 V리그 공격·키오픈 1위, 리시브 2위...흥국생명 1위 견인

슈퍼스타 김연경(36·흥국생명)은 올 시즌에도 변함없이 프로배구 V리그 부문별 선수 순위에서 최상위 자리를 휩쓸고 있다.

공격성공률(45.68%), 오픈 공격(성공률 42.71%), 키오픈(성공률 51.35%)은 전체 1위이고 후위공격은 5위(성공률 37.5%)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연경은 리시브 효율 2위(42.86%)를 달리며 소속 팀 흥국생명 공·수의 축이 되고 있다.

녹슬지 않은 김연경의 활약 속에 흥국생명은 올 시즌 1라운드 6경기를 모두 잡았다.

6승 무패 승점 17로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다.

12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다크호스 정관장과 홈 경기에서도 김연경의 활약은 대단했다. 팀 내 최다인 27점을 올렸고, 공격성공률(46.43%)도 5득점 이상 기록한 양 팀 선수 중 최고였다.

무엇보다 김연경은 승부처에서 빛났다.

그는 5세트 10-9에서 상대 팀 주포 메가왓티 퍼티위(등록명 메가)의 대포알 공격을 안정적으로 받아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살려낸 공격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했고, 이후 연속 득점하며 승부를 갈랐다.

4세트 19-22에서 시작한 대추격전도 김연경의 손끝에서 시작했다.

김연경은 19-22에서 깊숙하게 올라온 공을 중심을 잃은 채 쳐냈다. 몸은 흔들렸지만, 김연경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상대 미들블로커 손을 향해 쳐내기 공격을 시도해 기술적으로 득점했다.

이후 김연경은 상대 팀 외국인 선수 반야 부키리치(등록명 부키리치)의 강타를 다시 디그 처리하며 득점의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2026 WBC' 야구 강국 8개 팀 경쟁

한국, 본선 1라운드 자동 진출...일본·호주·체코 등과 C조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본선 진출권 4장을 놓고 경쟁할 예선 라운드 일정이 나왔다.

WBC 사무국은 13일(한국시간) 예선 라운드 참가 팀과 경기 장소 등을 발표했다.

2026 WBC 예선 라운드에서는 2023 WBC 본선 1라운드에서 조 최하위에 머문 대만, 중국, 콜롬비아, 니카라과와 본선 진출에 실패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브라질, 독일이 경쟁한다.

대만과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카라과는 내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돔에서, 콜롬비아, 중국, 브라질, 독일은 내년 3월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애리조나 투손에서 풀리그 형

식으로 겨룬다.

각 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1개 팀은 본선 라운드에 직행하고 2, 3위 팀은 본선 진출 결정전을 한 번 더 치른다.

한국은 2023 WBC 본선 1라운드 B조에서 3위를 기록해 결선 진출에 실패했으나 각 조 4위까지 주어지는 2026 WBC 본선 1라운드 직행 티켓은 얻었다.

한국은 2026 WBC 본선 1라운드 C조에서 일본, 호주, 체코, 그리고 예선 라운드를 통과한 1개 팀과 경쟁한다.

/연합뉴스